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415장)
- +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22,14-23, 56 또는 23,1-49)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 사항, 건의 사항, 차기 장소를 결정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22,14-23 또는 23,1-49

고대 로마에서 숭배하던 여러 신들 가운데 야누스 신이 있었습니다. 앞뒤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신으로 또한 전쟁과 평화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야누스의 모습대로 시내 곳곳에 출입문을 만들고는 전쟁 시에는 이 문을 열어 놓고 평화 시에는 문을 닫아 놓았다고 합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기원전 7세기부터 1세기까지 700여 년 동안 야누스 문이 딱 두 번 닫혀 있었다고 하니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실상은 전쟁을 바라는 인간의 이중성이 이 야누스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결과 속이 다른 인간,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인간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복음과 수난 복음을 통해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루카 23,22) 라는 빌라도의 물음에 군중들은 소리칩니다.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무런 이유도, 증거도 없이 그저 미움뿐인 군중들, 단 하나 예수님의 잘못이 있다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주려고 하셨다는 것뿐입니다.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세상, 이 세상에 죄악은 사라져야 한다고 소리치면서도 전쟁으로 전쟁을 없애려는 사람들, 살인으로 살인을 멈추려는 사람들, 우리들의 이런 모습은 이 천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핏대를 세우며 외치던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쟁과 무력을 사용한 정의만 바라던 그들의 눈에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빨마가지를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외치던 이들이 내일은 그 나뭇가지를 이용해 예수님의 등을 그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원하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강력한 힘을, 우리를 죄와 권력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 줄 힘센 임금을 바라던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희망을 버리고 절망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사형이라는 절망의 도구를 사용해서 희망을 살해하고 맙니다.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인 군중들의 모습은 오늘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본당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당에 다니면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자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가정에 불화만 쌓이는군!” “주일 미사를 참례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의 화목을 위해 우리 가정은 이번 부활주일에 여행을 갑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성당 말고 다른 종교 예식을 따라도 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인이 아닙니까?(루카 22,58참조) 라는 질문에 몇 번이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라고 대답하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혼인이나 장례, 혹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마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끼서 불을 쬐는 베드로처럼(루카 22,56참조) 살짝 발만, 몸만 교회 안으로 끼워 놓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문은 세상과 교회라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야누스의 문이라 예수님의 돌무덤을 막아 놓은 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서는 늘 닫아두고 세상을 향해서만 열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기에 하느님 체험도, 부활 체험도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가로막은 큰 돌을 치우고 부활하시어 그분께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으로 성주간을 준비하는 우리 소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수원교구 3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예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산호세 성당 소공동체도 십자가의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 부활 세례식에서 주님의 귀한 양으로 태어나는 새 교우들의 굳건하고 끊임없는 믿음 성장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여호수아기의 개요

내용: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르단 강 서편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열두 지파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 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전한다.

저자: 탈무드 전통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책의 저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저작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자료가 합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확실한 저자는 알 수 없으나 뚜렷한 사관 아래 자료가 정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명기계* 전승자들이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명기계 - 신명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여겨지는 책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면 축복을 받고 그 계명을 어기면 재앙을 주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대 배경: 가나안 정복 시기인 기원전 13세기경.

편집 목적: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주고자 편집되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는 항상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며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따라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 이 달에 읽을 말씀: 여호수아기 1-5장

1. 다음 성경구절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여호 1,5-9 : 네가 사는 동안 내내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A)를 내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더욱더 (A)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B)하고, 오른 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B)해야 한다.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A)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답:)

- ① A 힘과 용기, B 명심하여 실천
- ② A 배짱과 소신, B 준법하고 생활화
- ③ A 자신감과 자존심, B 필독하고 암기
- ④ A 사랑과 배려, B 범률화하고 준수

2. 여호 2장에서 여호수아가 예리코로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자신과 그 가족들의 목숨을 보장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

3. 여호 3,1-17을 읽고 다음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주님의 ()를 멘 사제들이 ()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가 다 건너간 것이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라합은 이민족으로 창녀였지만 탁월한 믿음과 실천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구하고 믿음의 여성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히브 11,31; 야고 2,25)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실천의 크기는 어떠한지, 나 자신의 구원과 나아가 내 가족, 이웃의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크기인지 생각해보고 서로 나눠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정수 정현 현서 작곡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녀...

하느님 백 성 자 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할게 노래하자 일렬 두 아

중 - 기 하 고 봉사하 자 세 상 모 두에 게

마 음 보 - 아 기 도하 고 함께 나 가자 천국 으 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